

주일의 말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영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소화성당 주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교형자매님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하느님 품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설날이 되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한 해 동안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해 인사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축복을 비는 인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이 축원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복을 베풀어주는 인사입니다. 어린이도 아주 연세 높으신 어르신께 축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서먹하던 사람들 끼리도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또 먼저 이 인사를 받으면 같은 말로 그 상대방에게도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이 인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서로의 복을 빌어주게 되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함께 행복해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이 새해 풍습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설날 인사말에는 우리가 받을 복이 다른 사람이 빌어서 내려주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원의

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신기한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설날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풍습으로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빌어주는 이 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의해 풀려집니다.

오늘 1독서에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구약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받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가 밝혀집니다.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이 인사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빌어주는 인사인 것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새해에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명의 말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루카 6,20-24

예레 17,5-8 1코린 15,12,16-20 루카 6,17,20-26.

[설 명절 특집 1]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교구 사목국



떨어져 지내던 부모, 형제,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은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풍습입니다. 이런 명절에 우리 민족은 살아있는 가족만 만나는 것이 아니

라 세상을 떠나신 가족, 친지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냄으로써 세상을 떠난 가족도 함께 만납니다. 명절의 기쁨을 차례(제사)를 통해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만남으로 승화하고 한 가족임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민족은 참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민족. 와우~ 멋진 東方禮義之國!!!

우리 신자 가정에서도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그럼 가톨릭 신자인 우리는 이런 제사나 차례를 어떻게 지내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교황 비오 12세께서 1939년 12월 8일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반포했는데요. 이 훈령에서 ‘선조 공경의식’에 관한 지침을 밝히셨습니다. “시체나 죽은 이의 상 또는 단순히 이름만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과 기타 민간적 예모를 표시함은 가하고 타당한 일이다.” 예전에는 미신적이라 금지했던 예식을 존경과 효성을 표하기 위한 문화적, 민간적 예식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제한적이지만 허

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훈령에 준하여 한국 주교단에서도 2002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 **허용되는 행위**: 시체나 무덤,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만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진설하는 행위.

▶ **금지되는 행위**: 제사에서 축과 합문(闔門: 훈령이 제물을 흠향하도록 잠시 문을 닫는 예식), 장례에 있어 고복(擧復: 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예식), 사자(使者밥: 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밥과 신발을 상에 차려 놓는 것) 및 반함(飯飮: 죽은 이의 입에 쌀, 조가비, 구슬 등을 넣는 예식)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패는 신위(神位)라는 글자 없이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좀 복잡하죠. 아니라고요? 음. 그럼 다행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정(家庭)은 하느님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며 가정에 초대하는 제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행복하고 기쁜 명절 되세요. **한**

(다음 주보에 가톨릭 차례 예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미사

연중 제6주일

입당성가

416 좋기도 좋을시고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7 이세상 더없이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
셨네. 주님은 그들의 바람을 저
버리지 않으셨네.

파견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영성의향기

:: 영적 여정

영적 여정에서 처음 초보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매우 인간적인 행위로 잘 기울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림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신나게 잘 하다가도 갑자기 절망하기도 하고 “나는 안돼”라는 자학적인 비판도 하고 하느님의 현존이 매우 불투명하여 영적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인 평화를 구하기 보다는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힘겹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성사생활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도 감성을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적 여정에서 다음 단계는 진보자의 단계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패기가 넘치는 젊은이 같은 영성생활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선물을 자주 받게 되고 기도 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긴 시간을 침묵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 상태에서 하느님의 위로를 못 느끼는 어둔 밤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노력 없이도 하느님께서 유익한 영혼의 음식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여정에서 전력을 다해 노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주교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글 깊은생각

기억나지 않는 강론



한 신자가 일간지 편집인에게 온갖 기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은 다음 주일마다 성당에 나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성당에 다녔고, 그 사이에 3천 번 가량 강론을 들었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강론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소. 그러니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그런 점에서 사목자들 역시 강론으로 시간만 낭비한 셈이요.’ 이 편지는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란에 실려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일 계속된 이 논쟁에 썩기를 막는 글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아내는 3천 2백번 가량 식탁을 차렸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식단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소. 그러나 나는 이것만은 알고 있소. 그 모든 음식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었고 내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다는 것을. 만일 아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죽고 없을 것이요.’ 그 후 이 편지에 대한 논평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주교

- 옮겨온 글입니다.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1주기 기일 미사

- 일시: 2.16(화) 11:00
-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 집전: 조환길 주교

★ 모임 · 행사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주기 추모음악회

- '팜파라 테너 임형주 & Memory'
- 일시: 2.20(토) 19:00 대구시민회관 대공연장
- 문의: 422-4224(티켓가격: 4만4천원~9만9천원)

성바로 2020 이벤트(256-4592)

- 성바로 출판사 도서, 음반, 성물, 카드 등
- 매월 20일 20% 할인행사를 합니다.(타출판사제외)
- 일시: 2.20(토)성바로대구서원(성모당부근)

94차 선택주말

- 일시: 3.5(금)~7(일), 19:00까지 입관
-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교구청 내)
- 신청: 대구선택카페(http://cafe.daum.net/daeguchoice)
- 문의: 010-9585-5370, 마감: 2.26(금)선착순40명

★ 성소모임 · 피정 ★

나는 주 너의 하느님(식별피정)

- 일시: 2.27(토)17:00~28(일)19:00
-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장소: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 문의: 010-8519-3431 / 313-3431

'교구 100주년' 선교

복음의 나팔수-바오로 선교, 피정 연수

- 일시: 화~토(2~3시간), 장소: 선교센터(계산문화관3층)
- 대상: 본당20~40명, 지도: 이관석 신부
- 문의: 한국천주교가톨릭교단 781-6100
- ※ 본당 전교우 선교연수 별도 신청

천주성녀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2.21(일), 장소: 성당동성당 수녀원
- 문의: 016-645-8851 / 626-6213
- ※ 성소상담 언제나 가능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2.21(매월셋째주일) 14:00, 장소: 계산서원
- 문의: 010-3113-6219 / smm.or.kr
-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 일시: 2.17(수)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422-6691 삼덕성당

★ 모집 · 교육 ★

2010가톨릭상지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대구반)모집

- 모집학과: 사회복지과(야간)
- 모집기간: 09.12.10(목)~10.2.19(금)
- 장소: 대구(시립회망원)-지하철대곡역에서 150m
- 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 미 IVY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제휴
- 외국협력대학 유학 시 학점인정
- 이수 후 공립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응시가능
- 문의: 526-0121(http://tesol.cu.ac.kr)

통합예술치료사 자격증과정모집

- 일시: 3.5(금) 9:30~12:30
- ORPT 대강관계부도교육 마음편 모집
- 일시: 3.15(월) 9:30~12:30
- 문의: 794-6022
- 주최: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센터

아버이상경학교 신입생 모집

- 모집기간: 2.15(월)까지
- 대상: 가톨릭 신자 누구나
- 원서접수: 직접 방문 또는 메일이나 카페
- 문의: 815-7888

다음카페 - '아버이상경학교'

5차원 전면교육 리더십 특별과정 18기

- 일시: 2.26(금)~28(일) daum, 카페'우아칭'참조
-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054-436-0184
- 대상: 초·중·고생 / 선착순24명(전화신청가능)
- 주관: '우아칭' 청소년영성의집살라시오수녀회
- 문의: 010-3883-7004/02-832-2654, 참가비: 26만원

수화교실개강(초급 · 중급) - 3개월

- 개강: 2.28(일)14:00, 장소: 계산성당
- 일시: 매주(일)14:00 / 16:00(회비6만원,교재비별도)
- 문의: 농아선교사사무실 254-3423 / 011-809-0447

제25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개설

- 일시: 2.22(월)~26(금) 13:30~17:00
- 장소: 남산동 대신학교 강의동 2층 제9강의실
- 문의 및 신청: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아버이 성경학교 평생 교육관 모집

- 일시: 매주 월 10:00~12:30 / 19:00~21:30
- 접수: 1.2(토)~2.23(화), 면접: 2.21(일)~23(화)
- 대상: 아버지성경학교졸업자, 동등한 자격자
- 내용: 지혜서, 아가, 루카복음(심화)
- 문의: 아버지 성경학교 교육관 815-1114

가톨릭요셉발간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 매주 월 10:30
- 문의: 476-7774(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가톨릭근로자회관 강좌인내(253-1313)

- 에니어그램1단계모집: 3.5(금)~6(토)선착순20명
- 스페인어초급개강모집: (수,목)11:00 / 19:00
- 영어초급개강: 3.6(토)10:00 / 11:00
- 일본어초급개강: 3.2(화)10:00 / 19:00

선교센터 사무직원 모집

- 대상: 실업제정보통신고등학교이상 PC능숙한자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 문의: 781-6100(계산문화관 3층 선교단)

★ 안내 ★

2월 가나강좌(1인당2만원, 당일접수)

- 일시: 2.21(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외대 마리아관
-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군중후원회 2월 죽도성당 미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직자 사칭의 사기예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2월 15일(월) 낮12시	성모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2월 18일(목) 오후2시	성모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미사	2월 16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대구큰사랑요양병원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한의사 진료 ▶중풍, 말기암, 재활치료
입원상담 ☎ 951-9119
경대교에서 대구공교방향 100m
병원장 김지현 이사

한신주택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칼라강판 판발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냉동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박일주(마태오) 011-529-7501

범어 램브란트 치과

원장 김대호(마치아)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옆 남부외과 4층
Tel. 754-2804
www.ilovelamplant.com
월·수·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 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고객상담 080-118-1004
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늘 시원한 학문외과

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야우구스티노)
치질·변비·소아변비·변실금·위·대장내시경
여성전용 입원실·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com
신경대우아파트 북원오거리

보석시계 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임종화(바실리오)
423-6336, 011-809-3003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과 김기산(안드레이)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